

우수 중학생 사립고 쏠림 뚜렷

상위성적 3% 공립 138명·사립 372명 배정

광주시교육청, 2010 고교 입학 배정 분석

광주지역 성적 우수 중학생의 사립 고교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10 학년도 고등학생 입학 배정을 분석한 결과, 정원의 40%를 배정하는 선지원 경쟁률에서 공립은 1.8대 1, 사립은 2.8대 1을 기록했다. 사립이 공립에 비해 1.5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또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3% 이상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은 전체 512명 중 공립이 138명, 사립이 372명 배정됐다. 공·사립간 신입생 정원이 3대 7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정원대비 최상위권 학생의 입학비율은 사립이 공립보다 6%가량 높다.

전체 신입생의 평균 내신석차 백분율에서도 공립은 43.20%인데 반해 사립은 37.73%로 5.47%의 격차를 보였다. 성적 내신성적만 보더라도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사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립고 선호현상 때문에 사립고가 많은 남·북구지역이 학부 모들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는 45개교로, 국·공립 14개교, 사립 31개교인데 남구와 북구지역에 사립고의 절반이 넘는 21개교가 들어섰다.

지역별 사립학교 수는 동구 3개교(전체 학교수 5개교), 서구 3개교(8개교), 남구 11개교(11개교), 북구 10개교(13개교), 광산구 4개교(8개교)다.

모든 고교가 사립인 남구지역은 고교생이 몰려들면서 인구는 전체 광주 인구의 15% (21만3654명)에 불과한 반면 고교 배치율은 인구수 대비 9.4%를 초과하고 있다.

반면 서구와 광산구의 인구수 대비 고교 배치율은 각 -3.8%와 -4.7%다. 이는 인구수와 대비해 남구지역에 고

2010학년도 광주 공·사립 고입 배정 결과

구분	신입생정원	정원비율	상위(3%)학생수	상위학생비율	상위배정비율	내신석차평균
공립	4,842	30%	138	27%	-3%	43.20%
사립	11,548	70%	374	73%	+3%	37.73%
합계	16,390	100%	512	100%	6%	

교생과 고교가 많은 반면 서구와 광산구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의미한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는 김종국(43·회사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의 고교 진학(사립)을 염두에 두고 2년전 남구로 이사를 왔다"면서 "직장이 광산구에 있어 좀 멀긴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 만큼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공·사립의 교육격차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립의 서울대 진학수 등 대입성적 우수현상은 최상위성적의 신입생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광주의 한 공립고 교장은 "공부 잘하는 중학생의 사립고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사립고의 대입 성적도 당

▲광주 고교 배정=광주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선(先)지원 후(後)추첨이다. 1차로 출신 학교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1, 2지망을 선택하게 한 뒤 40%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60%는 출신고 근거리의 고교 중 1~5지망을 선택하게 해 추첨·배정한다.

연히 좋게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사립으로 가면 내신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방비 학교'

만취 30대, 학교서 초등생 위협하다 검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광주지역 일선 초등학교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남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여학생을 유인해 오라고 시킨 이모(39·노동·광주시 서구 화정동)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요일인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던 류모(11·초등학교 6년)군에게 접근해 "누나를 데려와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류군은 친구 20여명과 함께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으며, 이씨가 술에 취해 학교에 들어가는 동안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 이씨는 술집에서 나온 후 동행이 이상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류모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정오경 지인의 결혼식 참석차 광주시 서구 치광동 한 음식점에서 들렀다가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학교

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학교에 들어간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군에게 그런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여 지난 뒤에야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망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해 '뒷북 대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4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날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5천858곳과 주변 통학로에서 일제 방범진단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교내의 CC-TV 설치 현황과 경비원 운용 실태 및 방과후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영등포경찰은 지난 7일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김수철(44·구속)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047) 김중두



여중생 집단폭행 갈취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양 등 5명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출신 선배 등 5명으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모두 104만원을 빼앗고 20여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100억대 영산강골재 입찰부정

감사원 종합감사 착수

'100억대 영산강 골재 채취 사업 입찰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 광주시 도시공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어 감사원이 종합감사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 자체행정5과 감사팀 5명은 지난 8일부터 20일 일정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어 공사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전국 공사·공단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감사이지만, 감사 기간 중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 입찰 부정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강도 높은 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지검 강력부는 영산강 골재 채취사업과 관련 도시공사 담당 직원·입찰참가 업체 대표 등을 줄소환한 뒤 입찰이 두 차례 무산된 점, 입찰 과정에서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름철 식품위생 감시

보존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식품독이 발생하기 쉬운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14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한 식품 운반업소에서 과일과 채소 등의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고 공갈·횡령' 지방지 여수 주재기자 8명 구속

광고수수 과정에서 지난 5년간 수 억원대의 광고비를 빼돌린 지방지 여수 주재기자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4일 광고를 수수하면서 실제 광고금액 가운데 일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로 모 지방지 여수 주재기자 A(60)씨 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B(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달라"고 위협한 혐의(공갈)도 C(4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여수산단 등의 광고를 수수하면서 광고금액 가운데 100만~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5년간 총 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갈 혐의로 구속된 C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여수산단과 각종 공사현장 등에 찾아가 "광고를 달라"며 광고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조폭 '쌀 카드깡'

농협 전남본부 실태 파악 나서

폭력조직들이 카드로 쌀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른바 '막팔기(부매)'를 통해 현금화에 사재함에 활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돼 농협 전남본부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농정 관련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폭력조직과 사재업자들이 카드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쌀을 구입한 뒤 이를 구입가보다 낮게 팔아 현금화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됐다.

첩보에 따르면 이들은 구입한 쌀을 대형 슈퍼마켓이나 쌀도매상에게 싼 값에 되팔아 조성한 현금을 종자돈으로 사재시장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법 등 쌀 관련법에는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처벌할 규정도 없어 농정당국이 발을 구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의 RPC는 통상적으로 쌀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있어 이른바 '쌀 카드깡'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다만, 유통업자와 사재업자들이 공모하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양곡가공업의 경우 반드시 등록·신고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른바 '막팔기'나 '쌀 카드깡'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법당국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쟁사 제품 훔치고 자사 제품 진열



○광주동부경찰은 14일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경쟁 업체 유제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모 유제품 업체 대리점 소장 차모(4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동구 대인동 L백화점 식품품 매장에서 N사의 우유와 농후발효유 등 유제품 30만원 상당을 가져오는 등 지난 3월 15일부터 8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자신이 납품계약을 맺은 유제품업체의 매장에 정하고 있을 뿐, 이른바 '막팔기'나 '쌀 카드깡' 등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법당국의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양승현기자 yang@kwangju.co.kr

- 2011학년도 -

대학편입

매콤방학을 잡아라!

개강 7월 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이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편입영어

- 대학입시의 절대적인 평가요소인 편입영어
- 이론과실전 - 기출문제 사근사근
- 실화과합반 - 유망별 문제풀이

편입수학

미국계 편입합격의 열쇠
= 머릿본 이론/문제풀이 =

편입수학의 평가비율
= 1/3이론과 2/3문제풀이

TEPS대비반

- TEPS는 편입 선별시험의 필수조건
- 편입영어 실신 TEPS로 대비
- TEPS대비 전문대학용 최신재 익히기
- TEPS기출문제 풀이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문의) 222-8088, 227-8088